

南江·太和江流域의 靑銅器時代 據點聚落*

裴德煥

Bae. duckhwan
東亞文化研究院

I. 머리말

聚落은 단순한 집의 집합이 아니라, 自足的인 경제단위인 동시에 구성원들이 한 동아리를 이루어 모여 사는 定住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個人은 어떤 집에 소속되어 그 집의 일원이라는 지위에 의해서만 취락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주어진다.¹⁾ 또한 사람들이 연면히 존속한 모습살이의 社會空間的 定型으로 일과 놀이, 삶과 죽음이 귀속되는 하나의 小宇宙와 같은 존재로서, 독자적인 존재양식과 형성원리를 가지며, 사회구성의 일반적 속성을 分子的으로 나뉘어가고 있는 自己完結的 定住單位이다. 이처럼 인간의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공간이 聚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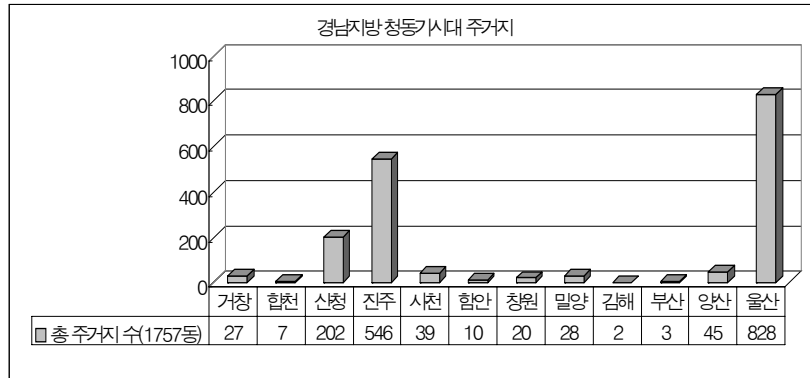
경남지방의 청동기시대 취락조사는 1975년 문화재연구소의 진주 대평리 유적의 발굴조사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0년 울산 검단리유적의 조사에서는 기존의 소규모발굴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취락의 全貌가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최근까지 경남지방은 주거지발굴조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유적이 확인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진주 남강댐유적이 서부경남지방의 청동기시대 취락의 대표적인 사례였다면, 동부경남지방은 대화강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의 발굴 조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확인된 주거지만도 약 2,000棟을 넘어서고 있다.²⁾

* 본 연구는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의 2004년도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崔在錫, 『韓國農村社會研究』, 一志社, 1975

2) 2005년 1월까지 발굴조사된 유적에 한정하였으며 지면관계상 개별 유적에 대한 보고서 및 현장설명회 자료 등은 생략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글의 부록에 명기하였으므로 참고하



<표-1> 경남지방 청동기시대 주거지 조사현황

그러나 취락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³⁾ 본 글 역시 그러한 점을 念頭에 두고서 비교적 동시기의 마을유적이 가장 많이 조사된 남강유역과 태화강유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남강·태화강유역의 거점취락

취락 형성의 일차적인 계기는 물질적 조건을 토대로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며, 그것에 규정된 상부구조적 제조조건 및 제약조건으로서의 자연환경적 기반들이 복합적인 형성요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은 개별적으로 직접 취락형태를 조형하는 것은 아니고, 凝集力의 계기로서의 共同性(communality), 형성주체와 규모증대의 원천적 소재로서의 人口要因(population), 제약인자

기 바란다.

裴德煥,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2005. 4

3) 문제점으로서 ①한정된 지역 및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②주거지의 파괴 및 교란 등으로 인한 대표성 의문 ③동시기성 확보문제 및 시간 폭 ④주거전략과 생활습관 추적의 어려움 등을 들었으며, 연구진행을 위한 假定으로 ①발굴된 한 마을의 주거지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동시기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특별한 반증자료가 없는 한 동시기로 추정 ②세부적인 시기구분 유보 등을 들었다.

김권구, 『영남지방 청동기시대 마을의 특성과 지역별 전개양상』,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 충남대학교박물관, 2001

로서의 地形條件(terrain potential)들이 복합적 영력이 되어 역사적 관성과 생태적 한정 속에서 구체적인 취락형태로 표출되었다. 인구, 공동성 및 지형조건이라는 3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주거의 응집도와 응집규모가 달라진다. 즉 인구규모가 크고 공동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형조건이 응집에 좋은 환경이 될 수록 주거의 응집도와 응집규모가 증대된다.4)

권역	유적수	대상유적		주거지수	특징
남강유역	10	산청	옥산리·사월리·소남리	302	休岩里型 住居址
		진주	대평리 어은·옥방·상촌리·귀곡동 대촌		
		사천	본촌리		
태화강유역	18	언양	방기리·교동리·신화리·서부리 남천·구수리	528	蔚山型住 居址
		울산	천상리·사연리·구영리·평천·굴화리·무거동·옥현·다운동·신정동·야음동·연암동·창평동·신현동·서부동		

<표-2> 남강유역과 태화강유역의 유적 및 주거지 수

특히 지형조건은 물리적인 틀로서 취락 입지와 영역 및 형태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지형은 근본적으로 취락 입지의 적격성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성장과 발전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공간 틀로서 작용한다. 또한 지형조건은 토지 이용의 가능성과 내용을 규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됨으로서 간접적으로 취락형태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고고학계에서 지형조건 분석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취락 입지에 대한 분석으로서 취락의 규모와 형태결정의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즉 주거의 입지는 정주의지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물·연료·경지 등 물질적 조건의 충족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경남지방에서 비교적 동시기의 대규모 취락이 집중분포하는 지역은 남강유역과 태화강유역이다. 이 중 남강유역은 휴암리형 주거단계, 태화강유역

4) 鄭鎮元, 『韓國의 自然村落에 관한 研究-形成과 形態를 中心으로-』, 『地理學論叢』別號 13,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論文集, 1991. 8

은 울산형 주거단계의 유적으로 유명하다. 특히 두 지역은 평지(남강유역)와 구릉(태화강유역)이라는 입지상 차이뿐 아니라 하천을 따라 列狀으로 취락이 분포하며, 각 취락 사이에는 규모 및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감지되기 때문에 취락분석 및 비교고찰이 용이하다.

또한 두 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은 環濠라는 특수시설을 가진 예가 확인되고 있다. 환호는 마을 주위에 두른 일종의 ‘濠’로서 방어, 경계, 구획, 의례, 경지로의 용·배수, 홍수대책 등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환호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90년대의 연구는 방어 및 경계 등 군사시설로서 주목받았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구획, 의례 등 2차원적인 기능에서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호의 최초의 기능과는 별개로 단지 유물의 출토양상만으로 의례적인 기능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대체로 남강유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예는 환호의 최초 설치면보다는 상부, 즉 환호의 본래 기능이 상실된 뒤에 유물의 폐기등 의례행위와 관계되는 경우가 옥방 1·4지구 유적과 진주 이곡동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유물을 폐기한 층은 환호의 최초 기능면이 아니고 폐기시 기능면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환호의 의례적 기능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적인 기능으로서의 구획, 경계 등으로 성격을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⁵⁾

1. 남강유역

남강유역은 상류의 산청 옥산리~하류의 사천 본촌리유적에 이르기까지 약 300,000만평의 면적에 10개 유적이 집중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全時期의 주거지가 확인되나 가장 많은 수를 접하는 것은 휴암리형 주거지이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휴암리형 주거단계로 한정하며, 송국리형 주거단계인 산청 목곡리, 진주 내촌리유적 및 참고문헌의 부재로 정확한 양상 파악이 불가능한 산청 소남리 유적을 제외한 7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지

남강은 낙동강의 지류로서 경남 함양군 서상면 덕유산에서 발원하여 함양군, 산청군을 흘러 진주시에서 지류인 덕천강과 합류하며, 함양군 대산면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함양군과 산청군에서는 좁고 깊은 하곡을 통과하다 소남리

⁵⁾ 분석대상유적은 전면발굴과 부분발굴이 진행된 경우 등 각 유적마다 조사조건상 차이가 있으나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배제하고 현재까지 보고된 상태만을 위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부터 크게 곡류하여 하곡이 넓어지고 대평리에서는 폭 1km 정도의 넓은 범람원이 형성된다.⁶⁾ 남강변에 위치한 각 유적의 입지는 산청 사월리와 진주 귀곡동 대촌은 구릉상에 입지하는데 비해 산청 옥산리, 진주 대평리·상촌리, 사천 본촌리 등은 하안의 범람원 또는 충적대지 등 평지에 위치한다. 규모상 前者가 소규모 취락, 後者가 대규모 취락의 형태를 띠고 있어 대조적이다.

2) 형태

취락의 형태는 특징적인 시설인 環濠의 有無로 나뉜다. 環濠聚落은 산청 옥산리·사월리, 진주 대평리 등 3개 유적이 해당되는데, 사월리를 제외하면 모두 평지인 범람원상에 입지하고 있다. 주거지는 옥산리 50동 이상, 대평리 200동 이상으로 대규모인데 비해 사월리는 4동만 확인되어 차이가 있다. 또한 환호 자체도 옥산리와 옥방은 폭과 길이도 넓을 뿐 아니라 주거지 중심의 多重環濠인데 비해 사월리는 1列 環濠이다.⁷⁾

이 중 대평리는 1km의 직선거리상에 옥방 1·4지구에 2개소의 同時期 환호취락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된 공간에 2개소의 취락이 굳이 다중 환호와 목적을 조성하고 있어 우호적 또는 적대적관계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두 취락은 경작지를 나누어 경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⁸⁾ 蛇行하는 남강의 分節地點 및 두 취락 사이의 경작지간 거리로 볼 때 옥방 1 지구는 환호内の 7지구와 환호外的 2·3·8·9지구와 함께 하나의 취락(편의상 이하 옥방 1유적)으로 통합가능하며, 옥방 4 지구는 환호 外의 옥방 5·6지구, 어은 1·2지구와 함께 또 다른 취락(편의상 이하 옥방 4유적)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⁹⁾

두 취락 환호의 공통점은 ①방형의 평면형태를 띠는 多重環濠¹⁰⁾, ②환호

6) 황상일, 『남강 중류 대평 충적평야의 지형발달』, 『청동기시대의 대평·대평인』, 국립진주박물관, 2002

7) 대평리 옥방 4·7지구·어은 2지구와 옥산리유적의 보고서가 미간되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한 수치이므로 본래의 조사내용보다 주거지 수가 적게 집계되었음을 밝혀둔다.

8) 한정된 공간에 있는 두 유적은 취락 규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적대적 관계였다면 至近距離에 취락을 만들 이 유도 없을뿐더러 만들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종규는 출현배경은 불명이나 母村에서 인구증가 등의 이유로 분리해 나온 子村의 관계이거나 혹은 쌍계적인 혼인집단관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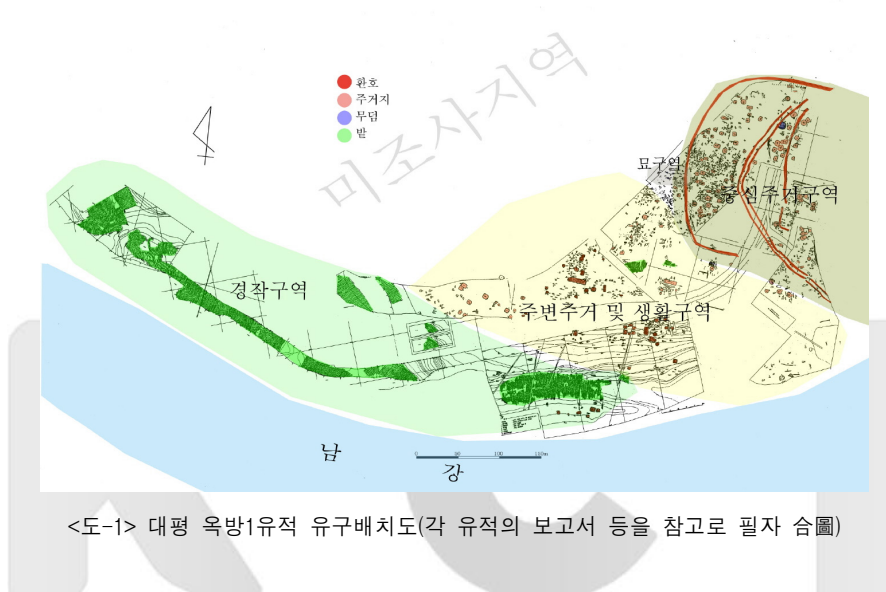
최종규, 『옥방환호』, 『청동기시대의 대坪·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2002

9) 裵德煥, 『嶺南地方 靑銅器時代 環濠聚落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0

10) 沈奉謹은 환호의 평면형태 변화는 위치하는 지형의 변화와 관계하며 규모의 대형화는 정치

의 입구부(육교부) 존재, ③환호内外 주거지의 분리, ④경작지 조성 등을 들 수 있으나 잔존양상으로 볼 때 취락규모는 옥방 1유적이 더 컸던 것으로 추정 된다.

非環濠聚落은 평지인 상촌리, 본촌리, 구릉인 귀곡동 대촌에서 확인되는데, 평지에 입지하는 유적들이 10동이상의 주거지로 구성되어 4동인 구릉입지보다 비교적 취락의 규모가 크다.



<도-1> 대평 옥방1유적 유구배치도(각 유적의 보고서 등을 참고로 필자 습圖)

3) 규모

취락의 규모가 비교적 큰 유적들은 평지인 범람원상에 위치하는 유적들로 대평리가 207동으로 가장 많은 수를 점하며, 옥산리 54동, 상촌리 22동, 본촌리 11동의 분포를 보인다. 구릉인 사월리와 귀곡동 대촌은 5동 미만으로 평지에 입지하는 유적에 비해 취락의 규모가 작다.¹¹⁾ 주거지 수가 많다는 것은 곧 인구

적인 주변지역과의 통합으로 일어나는 인위적인 현상의 반영으로 보았다.

沈奉謹, 『韓國의環濠遺蹟』, 『東아시아의環濠集落』, 第2回 檀原考古學研究所 日韓古代シンポジウム, 奈良縣立檀原考古學研究所, 199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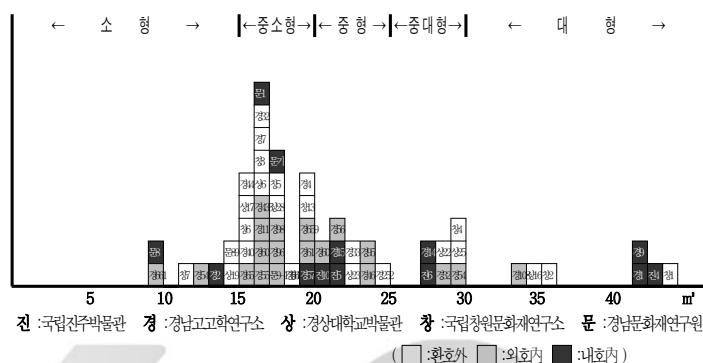
武末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전·중기의 환호는 모두 원형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환호를 두른 시점에서는 일상의 거주시설을 모두 두르는 것을 원칙으로 보았다. 또한 검단리 같은 예외도 있지만 “전원을 위한 원형”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야요이의 원형환호가 한국 남부의 원형환호를 재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武末純一, 『弥生の村』, 日本史リブレット3, 2002

¹¹⁾ 대평리와 옥산리의 경우 범람 등의 요인으로 상하중복이 심하여 집계수치보다 당연히 낮아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¹²⁾, 대평리와 옥산리유적은 현재의 농촌마을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규모가 상당히 크다.¹³⁾

남강유역에서 취락 규모가 가장 큰 옥방 1유적의 주거지를 환호와 경작지를 중심으로 內濠 內, 外濠 內, 環濠 外로 나누어 면적산출이 가능한 주거지 58동의 면적을 도수분포화한 것이 <도-2>이다.¹⁴⁾



<도-2> 대평 옥방1유적 주거지 도수분포도

면적산출결과 중형주거지가 44동으로 가장 많은 수를 점하지만 環濠 內 外의 입지상 차이는 없다. 그러나 대형주거지 중 40㎡이상의 큰 규모는 內濠 內에서 3동, 環濠 外에서 1동 확인된다. 이들 대형주거지는 주주혈과 타원형 수혈을 가진 전형적인 주거지들과 달리 주거지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주혈수를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內濠 內의 주거지 3동은 주거지 규모뿐만 아니라 입지, 저장혈 시설 및 꼬막류의 출토 등에서 다른 주거지와 차별성이 보이기 때문에 수장층의 주거지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소형 주거지들의 경우

질 것이나 발굴조사지역이 한정적이어서 미발굴조사지역을 감안한다면 그 수치는 어느 정도 상호보완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2) 주거지 수=인구 수=마을규모

13)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촌 마을은 50호 미만의 농가로 구성된 마을이 전체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

최장순·정구용, 『영동지역 농촌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고찰』,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18권 11호(통권 169호), 2002. 11

14) 본 글에서 각 유적의 주거지 면적은 소형-0~15㎡, 중소형 15~20㎡, 중형-20~25㎡, 중대형-25~30㎡, 대형 30~50㎡, 초대형-50㎡이상으로 일괄적용하였다. 주거면적을 통일시킨 이유는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분류기준이 달라 비교고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형을 3단계로 분류한 것은 주거지 분류결과 가장 많은 분포수를 보이고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입지와 주거지 면적의 상관관계만으로는 차별성을 감지하기 어렵다.

옥방 1유적의 산출가능한 주거지 58동의 평균면적은 21.5㎡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취락 인구를 算出하면 다음과 같다. 1인당 평균면적 5㎡를 적용하면 한 가구당 4명, 3㎡를 적용하면 한 가구당 7명이 산출되며¹⁵⁾ 이를 옥방 1유적의 전체 주거지 수(120동)에 대입하면 약 480~840명, 옥방4유적의 경우 약 350~610명의 인구가 추정된다. 그러나 옥방 1유적의 주거지는 2번의 중복이 있었음이 일부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단순히 약 2번의 마을조성을 한 것으로 가정하면 약 240~420명의 인구가 추정된다.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옥방4유적의 인구수를 산출하면(주거지-87동) 약 350~610명, 중복 2회를 감안하면 174~305명이 산출된다.¹⁶⁾

4) 據點聚落의 설정

‘據點聚落’은 母村聚落, 中心聚落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취락의 특징으로서 ①대규모 취락 및 많은 주거지 수, ②대규모 분묘군의 존재 및 수장묘의 축조, ③생산용구 제작공방의 존재, ④환호 및 대형건물의 존재 등의 조건이 요구된다.¹⁷⁾

¹⁵⁾ 우리나라의 경우 金正基 이래 대체로 1인당 5㎡로 보고 있으나 북한, 일본학계는 1인당 3㎡로 보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같은 3㎡를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일본 학계에서는 노지나 기타시설을 감안한 면적 3㎡를 빼고 있기 때문에 북한학계에서 추정하는 인원수보다 항상 1인이 적은 수치가 산출된다. 한편 기계적인 계산방법에 반대하여 주거면적에서 입구, 노지 등을 뺀 수치에 일인당 橫臥面積을 나누는 계산법이 현실적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노지와 침소 등이 명확히 판명되는 주거지의 경우에는 타당한 방법이다.

權五榮, 『한국 고대의 聚落과 住居』, 『韓國古代史研究-韓國 古代의 人間과 生活-』12, 한국 고대사학회편, 서경문화사, 1997. 10에서 再引用하였음.

실제로 필자가 김재현[『인골로 본 남강 대평사람들』,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2002]에 의해 밝혀진 대평리유적의 인골신장인 남-164cm(옥방 4지구 26호 석관묘), 여-149cm(옥방 7지구 17호 석관묘-149.3cm, 옥방 5지구 A-1호 석관묘-148.7cm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주거지에서의 橫臥面積算出을 시도하였으나 ①유물의 본래 위치 비정, ②입구부 설정, ③주거지 공간분할, ④자료의 방대함 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5㎡와 3㎡ 두 가지 기준으로 인구를 산출하여 최소인원~최대인원을 추정하였다. 필자와 같은 방법으로 김권구도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을 추정하고 있다.

김권구,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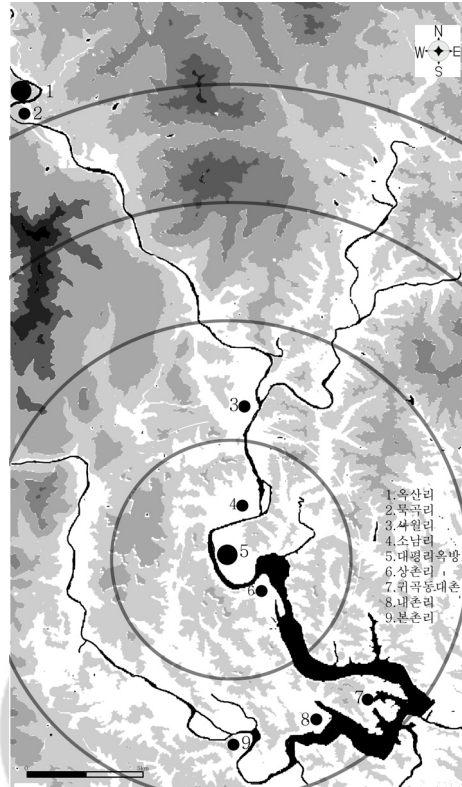
또한 유구의 중복관계가 나타날 경우 중복 수만큼의 유구 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취락의 인구수를 추정하였으나 적합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¹⁶⁾ 그러나 옥방1유적의 경우 상하중복관계가 확인되는 주거지는 10례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¹⁷⁾ 田中義昭, 『弥生時代據點集落の再檢討』, 『考古學と遺跡の保護』, 甘粕先生記念論集, 1996
都出比呂志, 『弥生集落は都市にあらず』, 『都市と神祇の誕生』, 日本古代史, 新人物往來社, 1998

남강유역에서의 거점취락은 유적의 입지, 형태, 규모 등을 고려 할 때 대평리와 옥산리가 설정 가능한데, 옥산리의 경우는 한정적으로 발굴되어 취락의 전모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단위면적당 주거지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미조사구역을 감안한다면 대평리에 버금갈 것으로 추정된다. 두 유적의 거리는 직선거리 약 22km로 남강이라는 특수성¹⁸⁾을 감안하면 짧은 거리에 비해 거점취락이 至近距離임은 분명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정확한 양상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평리유적과의 비교고찰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따라서 대평리유적을 거점취락으로 설정하여 주변유적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반경 5km 이내-상촌리, 소남리유적, 반경 10km 이내-귀곡동 대촌, 본촌리유적, 반경 15km 이내-사월리유적이 포함된다. 반경 15km 이내의 유적들 중 비교적 취락의 규모가 큰 상촌리유적은 약 3km 이내의 거리로서 옥방 1유적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대평리유적은 전술한 것처럼 同時期에 2개소의 취락유적이 존속한 것으로 본다면, 한정된 범위여서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이다. 그 중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可耕地의 확보문제이다. 주거의 응집도가 높아질수록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나며 필요한 경지의 면적도 넓어진다. 경지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경지와외의 거리가 멀어짐을 반영한다. 이러한 물리적 거리마찰은 1차적으로 농업의 집약도에 반영되며, 2차적으로는 토지생산성에 반영됨으로써 영농의 가능



<도-3>남강유역의 취락분포
(○간격 : 5km)

¹⁸⁾ 최종규는 1일 성인의 이동거리를 30km로 보았다.

崔鍾圭, 『두호리 출토 天河石製 球玉에서』, 『固城 頭湖里 遺蹟』, 慶南考古學研究所, 2000. 12 하지만 남강을 교통로로 사용하여 배로 이동한다면 육로이동보다 적어도 몇 배의 거리를 더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보통 지리학에서는 주거지에서 경작지까지의 거리가 500m이상이면 분촌화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¹⁹⁾ 옥방 1유적의 중심부에서 경작지까지의 거리는 약 800m로서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점차 경작지 가까이로 주거지가 이동하게 되었으나 漸進的인 주거의 이동으로 인해 결국은 가경지 및 주거입지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주거의 入植立地가 가속화되면 경지 또는 가경지의 여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간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대평리유적과 같은 경지-물 복합체는 농업생산을 최대화하기 위한 경지배열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가경지를 최대화하고 비생산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입지를 밀어내어 일종의 分村化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는 진주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예정부지내 유적(진주 이곡리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이곡리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중기에 조성된 환호취락으로 전기의 환호를 폐기하고 중기의 방형환호를 조성하였다. 그 후 일정시점이 지난 후 환호 등 주거역을 폐기하고 수로 등 논관련 유구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⁰⁾

결국 옥방 1유적을 거점취락으로 가정했을 때 上記의 요인과 주거·인구 압 등의 요인으로 일종의 분촌화가 진행되었음을 가정한다면 상촌리, 귀곡동대촌, 본촌리 등으로 분촌화가 진행되어 母村과 子村의 관계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²¹⁾

2. 태화강유역

태화강유역은 가지산에서 발원하여 언양-울산만으로 이어지는 태화강 주변으로 언양 서부리 남천~울산 서부동 까지 유적이 집중분포하고 있다. 분석대상이 되는 유적은 울산형주거단계의 유적으로 18개 유적 528동의 주거지가 해당된다.

19) 옥방1유적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농협중앙회와 토지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500m미만이 45~62%로 가장 많은 수를 점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500m이내의 경지경작은 공간적으로 극복가능하나 그 이상일 때 分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거리에 따른 농업집약도의 변화도 0.5km증가할 때마다 경전비용 5.3%, 施肥비용 20~25%, 작물운반비 15~32%가 증가되어 1km당 평균 20%이상의 비용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鄭鎭元, 前掲書

20) (재)동아문화연구원, 『진주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예정부지내 문화유적 추가 시·발굴조사 2차 현장설명회』, 2006. 1. 11

21) 都出比呂志는 일본 畿内地方의 야요이시대의 평야부 환호취락을 지역단위의 거점적인 모집단이고 그 집중성이 극히 높은 점은 특기할 만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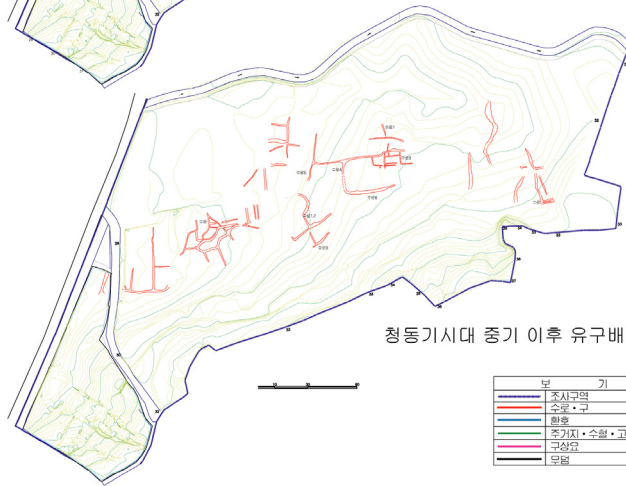
都出比呂志, 『日本農耕社會の成立過程』, 岩波書店, 1989



청동기시대 전기 유구배치도



청동기시대 중기 유구배치도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유구배치도

부 기	
■	초시구역
■	수로·구
■	흙층
■	주거지·수혈·고상건물
■	구상안
■	무덤

<도-4> 진주 이곡리유적의 시기별 유구배치도

1) 입지

태화강은 울산시 상북면 가지산(1,240m)에서 발원하여 주변 소지류를 합치면서 동류하여, 울산시 동쪽에서 불국사 단층선곡을 남류하는 동천과 합류하여 울산만으로 유입하는 주류길이 46km의 하천이다. 태화강 중류부 언양 부근에서는 선상지 및 비교적 넓은 평야가 전개되고, 중생대 퇴적암인 대구층을 지나는 동안 협곡을 형성하고 하천의 양안에 단구를 만들었으나, 울산시 부근에서 충적평야의 폭이 넓어져 최대 3~4km에 이른다. 태화강 중·하류부 양안의 비교적 넓은 하안단구 위에 청동기시대 마을들이 입지하고 유적의 밀도가 비교적 높다. 태화강 하류부에 입지한 울산시는 홀로세에 형성된 충적평야위에 입지하며, 이 충적평야와 울산만 사이의 태화강 하구부근에서 峽灣을 이룬다. 이 협만을 지나면 남동쪽으로 굽은 폭 1~2km, 길이 15km정도의 울산만이 동해와 연결된다.²²⁾ 각 유적의 입지는 서부리 남천을 제외하곤 전부 구릉지나 開析谷地에 위치하며 평지로부터의 비고는 그다지 높지 않아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을 보이고 있다.²³⁾ 이러한 이유로는 태화강의 규모가 작고 수량이 적기 때문에 자연제방과 하안단구 등 하천지형의 발달이 미약하고, 바다의 영향이 미치는 내만환경이었기 때문에 영남의 다른 지역과 달리 하천의 범람원이나 충적대지상에 형성된 취락이 드물다.²⁴⁾ 유적의 분포는 강의 曲流과 구릉의 分節 등에 의해 群을 이루며, 일부 유적은 강을 경계로 마주보고 형성되어 있다.

무거동 옥현, 야음동 유적 등에서는 구릉사면이나 정상부는 주거구역, 비교적 평탄한 곡간이나 저지대에는 水田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자연조건의 제약 아래에 있는 경지의 공간적 한정성 때문에 주거역과 생산역의 입지가 달라진 것인데, 특히 수전의 경우는 지형의 低平성과 물의 이용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입지의 限定性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경지 확보차원에서 구릉이나 사면에 주거지가 조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2) 형태

취락의 형태는 특징적인 시설인 환호를 경계로 環濠聚落과 非環濠聚落으로 나뉜다. 前者는 방기리·천상리 등 2개 유적이 해당하는데, 주로 언

22) 황상일·윤순옥, 『蔚山 太和江 中·下流部の Holocene 自然環境과 先史人의 生活變化』, 『韓國考古學報』43, 韓國考古學會, 2000. 10

23) 張載勳, 『韓國의 村落立地에 관한 地形學的 研究』, 『應用地理』제13호, 1991

24) 金度憲·李在熙, 『蔚山地域 靑銅器時代 聚落의 立地에 대한 檢討 -生業과 關聯하여-』, 『嶺南考古學』第35輯, 嶺南考古學會, 2004. 12

양~울산 서부지역에 편재되어 나타난다. 환호유적의 주거지 수는 방기리 49동, 천상리 44동으로 남강유역의 환호유적에 비해 취락 규모가 작다.

방기리유적은 구릉말단부에 2개소의 환호가 연결하여 존재한다. 입구부는 비교적 폭이 넓고 개방된 형태를 취하며 약 70m의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호적인 관계의 취락으로 추정된다. 환호 1은 1/2정도만 잔존하며 환호 2는 극히 남쪽의 일부만이 'T'자상으로 잔존하는데, 진주 대평리 처럼 한정된 공간에 2개소의 취락유적이 존재한다.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방기리, 양산 신평유적이 인접하며 구릉 주변에는 비교적 평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곳에 水田 등이 입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천상리유적의 환호는 취락이 조성되어 있는 구릉의 남쪽사면에서부터 동쪽사면, 북쪽사면의 일부에 이르기까지 구릉을 감싸면서 설치되었다. 취락은 크게 2시기로 나누어지는데 I기는 환호설치이전으로 구릉의 중앙평탄면을 주거입지로 사용하다가, II기가 되면 환호를 설치하고 구릉전체를 주거입지로 사용하였다. 취락내 주거지 입지는 3동을 1단위로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다.²⁵⁾

非環濠聚落은 상기의 두 유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적이다. 무거동 옥현유적이 종종 환호에 비견되기도 하지만, 곡간에 위치하며 시작부분은 둥글고 얇은 깊이를 가지다가 구릉 아래로 내려올수록 깊이가 깊어지면서 수전과 맞닿는 것으로 보아 雨水를 유입하여 수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즉 수로 일 가능성이 크다.

非環濠聚落 중 신화리, 무거동 옥현, 야음동, 신현동유적 등은 유적의 규모가 오히려 크거나 대등하지만 그 외의 유적들은 數棟~十數棟으로 구성되어 취락 규모에서 差가 있다.

3)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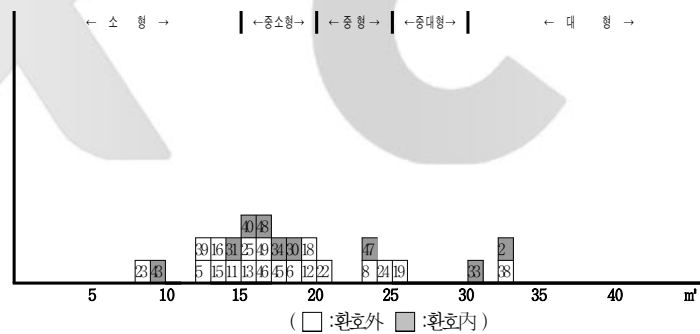
취락의 규모가 비교적 큰 유적들은 태화강의 남쪽에 주로 형성되어 있다. 그 중 신화리가 148동으로 가장 많은 수를 접하며, 무거동 옥현 71동, 방기리 54동, 천상리·야음동 44동, 신현동 34동의 분포를 보이며, 서부리 남천, 사연리 늪네, 평천, 연암동, 서부동 등은 10동미만의 주거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태화강유역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의 주거지가 조사된 신화리 유적은 구릉 3개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으며 2기에 걸쳐서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대다수는 주변 유적과 동일시기의 유구로 추정된다. 대체로 규모가 큰 장방형주거지가 선행하고 방형주거지가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방형주

25) 嶺南文化財研究院, 『蔚山川上里聚落遺蹟』, 2002

거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유적의 중심구릉인 II지구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50호 주거지로서 평면적이 84.7㎡에 이르러 일상적인 주거지가 아닌 집회소 등의 특수건물로 추정하고 있다. 유구의 밀집도와 수, 대형주거지의 입지 등을 감안할 때 2기의 시기 모두 II지구가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리 유적에서는 어망추가 1점도 출토되지 않고 반월형석도의 출토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농경위주의 집단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기리유적은 동일구릉에 2개소의 환호가 조성된 취락으로서, 환호 1内外에 28동, 환호 2内에서 2동, 환호 1과 환호 2 사이에서 19동 등 총 49동이 확인되었다. 이 중 화재로 폐기된 주거지 5동 중 환호 1内에 있는 12호를 제외하곤 모두 환호 外와 환호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환호 1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앙부 광장을 중심으로 중형 또는 중소형주거지 1동에 소형 주거지 2동이 균을 이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구의 중복 및 출토유물양상으로 2기로 세분되나 그 시기 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기리유적의 주거지를 환호 内外로 나누어 면적산출이 가능한 주거지 28동의 면적을 도수분포화한 것이 <도-5>이다.²⁶⁾



<도-5> 울산 방기리유적 주거지면적 도수분포도

면적산출결과 중소형주거지가 12동으로 가장 많은 수를 점하며 대형 주거지도 3동 보이니 주거면적과 입지의 상관관계만으로는 차별성을 감지하기 어렵다.

방기리유적에서는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환호 1内와 주변을 대상으로 인구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대상유적은 중복유구인 45호를 제외한 30동

²⁶⁾ 휴암리형주거지와 달리 울산형주거지는 집회소 등 상시적인 거주가 아닌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대형건물 및 소형의 작업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용도과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거지로 적용하여 면적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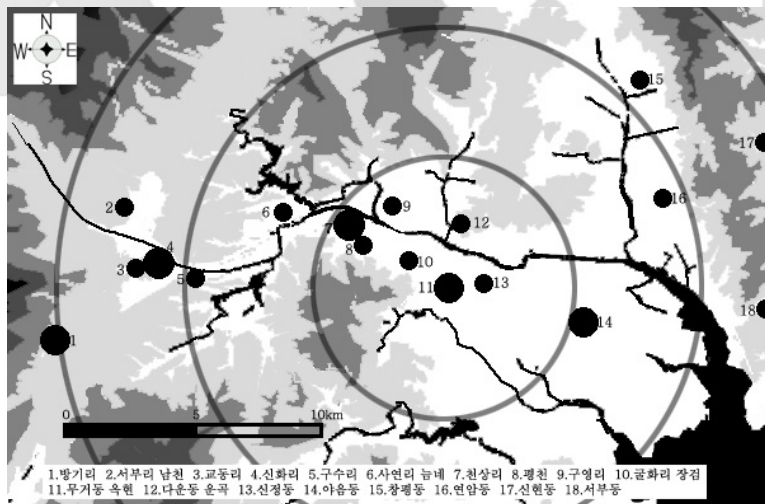
이며, 면적 산출이 가능한 주거지는 19동으로서 전체면적 347m², 주거지 평균 면적 18m²가 산출되었다. 따라서 환호 1 內와 주변의 주거지들(30동)의 평균 면적을 18m²로 가정한 상태에서 추정인구는 105~180명 정도이며 환호 1·2를 포함한 전체 인구수는 약 210~360명 정도로 추산된다.

상기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천상리유적의 환호기의 평균면적과 인구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환호기의 주거지 21동의 개별 주거지 당 평균면적은 16m², 이며 추정인구수는 약 70~110명이 산출된다.

4) 據點聚落의 설정

태화강유역은 하천의 分節과 유적의 근접도, 구릉의 연속성 등을 참고할 때, 큰 취락 주변으로 작은 취락들이 존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거점취락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방기리(74동) : 창원대·부산대 조사구역+양산 신평유적
- ② 신화리(196동) : 신화리+교동리+구수리
- ③ 천상리(62동) : 천상리+평천+구영리
- ④ 무거동 옥현(124동) : 무거동 옥현+굴화리 장검+신정동+다운동 운곡
- ⑤ 야음동(44동)



<도-6> 태화강유역의 취락분포(○간격 : 5km)

상기의 거점취락들은 약 5~7km 정도의 等間隔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환호(①·③), 취락의 규모(②·④), 대형건물의 존재(②·⑤), 수전(④·⑤)등의

특징이 있다. 남강유역에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달리 일정간격으로 거점취락이 존재하여 어느 정도 지역네트워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태화강유역의 유적들 중 중앙부에 위치하는 무거동 옥현유적을 기점으로 한 거점취락들의 분포반경은 5km이내-천상리유적, 10km이내-아음동유적, 15km이내-신화리유적, 16km-방기리유적 등이 위치하고 있다.

Ⅲ. 환호굴삭을 위한 노동력과 공동성

남강유역과 태화강유역 두 지역의 거점취락 들은 환호를 특징적으로 가지거나 취락 규모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취락의 규모가 크다는 점은 고고학적으로 가장 파악하기 쉬운 현실적인 특징이며, 거주인구가 많다는 것과 동일하다. 취락의 규모가 크고 다중의 환호가 결부된 대평리유적의 경우 2~3차례에 걸친 환호의 축조가 주목되는데, 화재주거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남강에 의한 수해피해를 상정할 수 있으며, 수해가 끝난 뒤 다시 동일지역에 취락을 축조하면서 환호도 재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호는 존재가치가 사라지면 곧 폐기되고 그런 후에라도 필요하게 되면 다시 掘削되는 양상²⁷⁾이 아니라 막대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던 시설이다. 이는 환호굴삭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추정가능한데, 비교적 굴삭이 용이한 사질토에 조성된 대평리유적의 경우 1인당 하루에 1m³, 구릉에 조성된 유적의 환호는 토양의 성질상 1인당 0.5m³를 판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요되는 노동력은 다음과 같다.²⁸⁾

① 대평리 옥방1유적의 외호 : 취락 및 환호는 약 1/2만 잔존하는데, 규모는 길이 약 270m, 폭 2.9m, 깊이 1.5m이다. 이를 당시의 농공구로 1인당 하루 1m³ 굴삭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약 1m 파는데 1일 4.5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270m를 판다면 약 1,215명의 노동력 투입이 예상된다. 당시의 추정인구를 약 240~840명 정도로 추정했었는데, 적정인구를 480명으로 가정하면 전체인구가 다 동원될 경우 약 3일이 소요되지만, 당시의 경작지나 다른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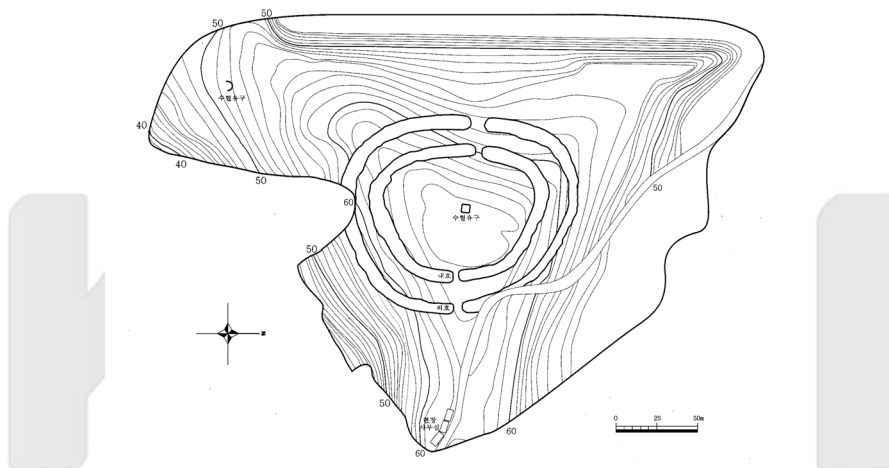
27) 최종규, 前掲書

28) 三木 弘은 일본 야요이시대의 환호유적에 대해 토양의 성질에 관계없이 1인당 1일 0.5m³ 파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三木 弘, 『“弥生都市”の射程』, 『羽衣學園短期大學研究紀要』 第39卷, 2003

② 울산 천상리유적의 환호 : 추정 총연장 600m, 폭 2~3m, 깊이 50~80cm의 장타원형 환호로서 환호期の 추정인구수 70~110명이 1인당 1일 0.5㎡를 판다고 가정하면 약 6,000명의 인원투입이 요구된다. 천상리 환호期の 최대인구수를 100명으로 가정한다면 약 60일 동안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이다. 그렇다면 환호내의 구성원들 모두가 약 2달 동안 환호굴삭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장기간의 계획성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예는 창원 남산유적과 울산 연암동유적에서도 확인된다<도-7>.²⁹⁾



<도-7> 울산 연암동유적 유구배치도

울산 연암동유적은 2중의 환호로서 동·서 양방향에 2개소의 입구부를 두고 있는데, 외호와 내호 모두 입구부의 방향이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동시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환호의 규모는 內濠가 둘레 약 260m, 폭 5.4~8.5m, 깊이 1.4~3.7m이며, 外濠가 둘레 약 360m, 폭 5.5~8m, 깊이 1.4~2.8m이다. 內濠 3~5차례, 外濠 2차례의 增·改築을 한 국내 최대규모의 환호시설이다. 환호의 중앙부에서 길이 5m, 너비 3.9m의 중소형 수혈주거지 1동만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규모,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과연 이 1동의 주거지를 위해 2중의 환호를 만들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연암동유적의 환호굴삭 및 개·

29) 慶南文化財研究院, 『蔚山 産業路 背面道路 蓮岩I.C. 開發區間內 遺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資料』, 2004. 11. 3

보수에 드는 노동력을 감안한다면 환호內 주거지의 인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주변 취락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가 요구되었거나 어떤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강유역이나 태화강유역의 환호가 무엇인가의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것은 마을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호의 굴삭은 공동체의 응집력이 요구되는데 개인 또는 구성원간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회적, 공간적 응집이 되며, 노동과 토지에 대한 각 개인의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책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리나 지배의 편리 내지 효율을 위해서는 일정한 강제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인 즉 구성원에게는 합의·노력의 공동성이 요구되어 참여하게 되며, 수장은 강제성의 공동성을 발휘하여 집단의 단결력유지나 공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인 환호를 굴삭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⁰⁾ 이러한 공동체의 응집은 환호의 굴삭 뿐 아니라 도작농경 등에도 발휘되어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거점 취락으로 발전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³¹⁾

IV. 맺음말

남강유역과 태화강유역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거점취락(母村)과 소규모 취락(子村)을 하나의 단위체로 파악하였는데 그에 따른 많은 인구와 높은 인구밀도, 추정되는 수장의 존재, 대규모 취락과 환호시설, 전업농, 전문공인과 교역품³²⁾, 넓은 취락반경 등을 가지고 있다.

대평리나 방기리유적의 경우 주거지 3~5동이 모여 군을 이루고 있으며,

³⁰⁾ 鄭鎮元, 前掲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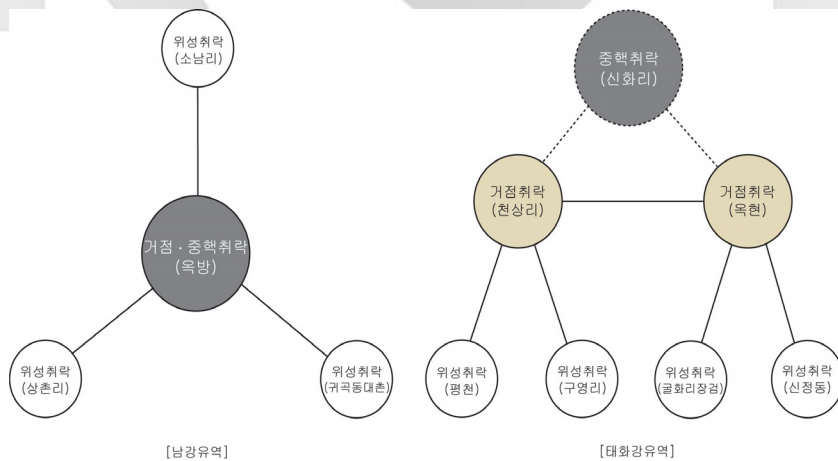
³¹⁾ 寺擇 薰은 환호의 굴삭은 수장이 일체의 공동체 작업을 통솔하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는 계 일보로 보았다. 또한 수도농경은 집락내부나 공동체의 결속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노동력의 대부분을 쌀 만드는데 투입하고 도작을 하는데 있어서 1년간을 계획적으로 그 준비나 관리에 두는 것에는 통솔력이나 관리능력을 가진 리더, 즉 수장의 권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廣瀨和雄 역시 야요이시대의 거대환호취락을 수장의 권력과 함께 한 도시로 주장하였다. 廣瀨和雄, 『弥生時代の首長-政治社會の形成と展開』, 『弥生の環濠都市と巨大神殿』, 池上曾根遺蹟史蹟指定20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 1996

寺擇 薰, 『王權誕生』, 日本の歴史02, 講談社, 2000

³²⁾ 庄田慎矢, 『玉作から分業を考える-韓國晋州大坪遺跡の分析から-』, 『考古學研究』第50卷 第4号(通卷 200号), 2004. 3

이러한 주거군들의 통합으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대평리유적의 경우 옥방 1·4유적의 한정된 공간에 2개소의 환호취락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보다 규모가 큰 옥방 1유적으로 추정된다. 방기리유적의 경우 환호 2의 일부만이 조사되어 환호 1과의 취락 규모 파악에 어려움은 있으나 대평리와 양상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규모가 큰 거점취락을 核으로 주변 취락들이 통합되어 일종의 聚落共同體를 형성하였다고 가정할 때, 남강유역의 경우 옥방 1유적에 필적할 만한 거점취락이 없기 때문에 옥방 1유적을 중핵으로 한 聚落共同體의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태화강유역의 경우는 남강유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태화강유역의 5대 거점취락의 경우, 주거지 수는 신화리유적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현재로서는 동시공존 주거지 수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보하더라도, 다른 4대 거점취락의 경우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각 거점취락간에는 일정반경(약 5km), 지형의 분절에 의한 구분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각자의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거점취락들이 일종의 聚落共同體를 형성하였다고 하면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더 큰 취락의 존재가 상정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정불가능하다. 다만 신화리유적의 취락 규모가 다른 취락보다 월등하다면 태화강유역 聚落共同體의 中核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예상된다.



<도-8> 남강유역과 태화강유역의 취락모식도

그러나 현재 태화강유역의 발굴조사는 주거지 조사에 국한되어 지식묘 등 분묘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락들이 얼마나 장기간 존속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하기 어렵다.

차후 더 많은 자료의 증가를 통해 각 수계 및 취락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취락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³³⁾



³³⁾ 최근 삼한시대 유적인 경주 황성동집단에 대한 시기별·단계별 주거의 이동, 생산시설, 공간구획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취락유적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崔景圭, 『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林東在,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6